작은 영기좌도 여래의 장엄한 영기화생 드라마

靈氣座

강우방 원장의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연화좌(蓮華座)→영기좌(靈氣座) ㊤

작은 금동불이라 하더라도 앞서 다룬 고구려 벽화에서와 같이 가능한 한 갖가지 영기문을 부여하려고 노력한다.

옛 장인들은 연꽃 모양에 온갖 영기문을 부여하여 영기꽃으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전혀 다른 차원으로 조형화하여 여래나 보살을 화생시켰다.

여러분! 여래와 보살은 단지 연꽃 위에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작은 금동불은 영기좌를 단순화 했지만, 복잡한 예를 들어 설명하려 한다. 실은 더 나아가서 결정적으로 여래를 화생시키는 것은 바로 꽃의 씨방=보주이다. 여래와 보살은 막연히 연꽃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씨방 위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꽃은 씨방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연꽃모양일까?

모든 꽃은 씨방이 자루 모양인데 연꽃만이 원추형(圓錐形)이어서 그 위에 서 있거나 앉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원추형 씨방에서 구체(球體)나 타원체(1^圓體)의 씨앗들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옛사람들은 만물의 근원인 씨앗을 형이상학적으로 변형시켜 보주(寶珠)로 인식하여 표현하였다. 그러므로 엄격히 본질적으로 말하면 여래의 보주화생(寶珠化生)이고, 영화된 꽃잎은 다만 보주화생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인데 지금까지 사람들은 연꽃잎만 보아왔다. 그 까닭은 씨앗=보주 씨앗과 보주의 관계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꽃잎에 갖가지 영기문을 부여하여 씨방과 더불어 강력한 영기꽃을 형성한다.

드문 예이지만 통일신라초의 금제불상 영기좌(靈氣座)를 살펴보면 왜 그런 용어를 만들었는지 알 수 있다.

총 높이는 불과 21. 8센티에 불과하니 대좌의 높이는 6센티미터 가량 밖에 안 되는 작은 작품이다.(그림 ①-1) 영기좌를 각도를 달리하여 보면 놀라운 도상을 볼 수 있다.(그림②-1)

5년 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통일신라 불상 특별전을 열었을 때, 이 작은 작품을 살피다가 대좌를 찍고 사진을 확대하여 보고 깜짝 놀랐다. 이리저리 각도를 달리하여 대좌를 찍어두었다가 이번에 선묘하고 채색분석하니 감회가 깊다. 영기좌 전체를 채색분석한 것을 살펴보기로 한다.(그림②-1)

기단부에는 투각한 단순한 영기창(靈氣窓: 안상이 아니다)을 통하여 기단부 전체가 무한한 우주 공간인 허공을 상징하고 있다. 혹은 영화된 물[靈水]이 가득 찰 수도 있다. 한 가지 색으로 도금한 것이므로 채색분석해 보아야 한다. 하대(下臺)의 연꽃잎마다에는 복잡한 조형이 있다.

우선 제1영기싹을 면(面)으로 한 형태가 연이어 있으며 그 사이 중앙에 큰 보주가 있고 그 보주에서 생긴 무량한 작은 보주들로 가득 차 있다. 즉 무량보주의 영기화생이다.

그 잎 모양 사이마다에서 잎 모양이 아닌 형태가 나오는데 입체적 양감이 대단하다. 즉 이 꽃잎 역시 막(膜) 같은 얇은 잎에 영기를 한껏 불어넣어 영화(靈化)시킨 것이다. 중대(中臺)에도 영기창이 새겨져 있는데 투각하지 않고 수많은 작은 보주들을 새겼다! 이것은 '우주에 충만한 생명력 가득 찬 무량한 보주' 를 나타낸 것이 아닌가. 상대(上臺)의 연잎마다에도 하대에서와 같이 무량보주의 영기화생을 나타냈다.(그림②-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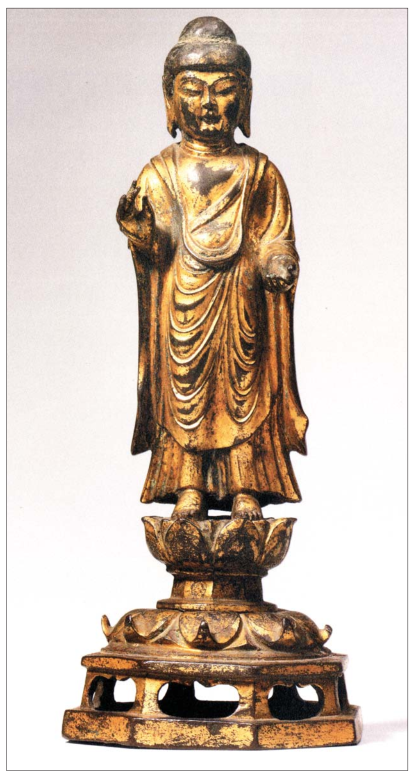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침내 씨방이 화생하는데 씨방 안에는 씨앗=무량보주가 화생하고 있다.

즉, '이 전체의 조형은 무량한 보주가 영기화생하는 조형이지 연꽃 대좌가 아니다.' 바로 이런 영기좌(靈氣座)에서 여래가 영기화생하는 것이다. 영기좌를 보면 오로지 무량보주의 영기화생이라는 실상(實相)이 있을 뿐, 연꽃이라는 것은 허상(虛像)에 불과하다. 상대(上帶)의 조형 전체를 잘 보이도록 올려다본 것을 다시 채색분석해 보면 전모를 더욱 확실히 파악해 볼 수 있다.(그림②-2)

매우 드믄 영기좌이지만 이 예로 보아 다른 모든 불상의 예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즉 다른 예들은 이러한 도상들을 생략한 셈이다. 마침내 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영기문들이 분명히 보이니 여래의 장엄한 영기화생의 드라마가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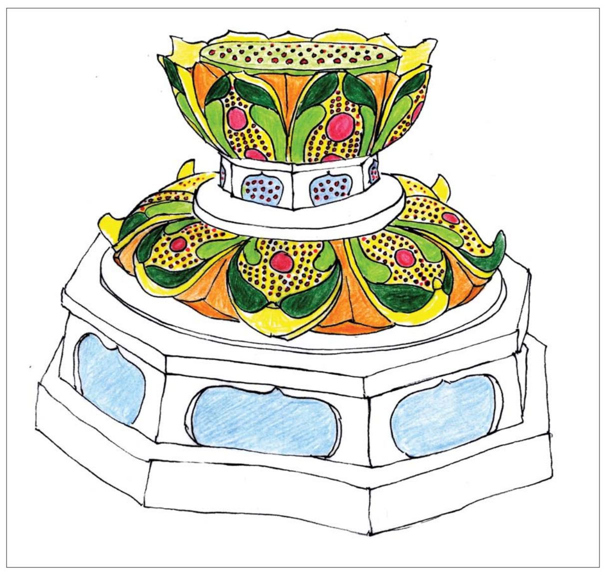
채색분석해 보면 영기좌의 실상이 매우 뚜렷하게 드러나므로 내 스스로 큰 충격을 받는 동시에 희열을 느낀다.

일향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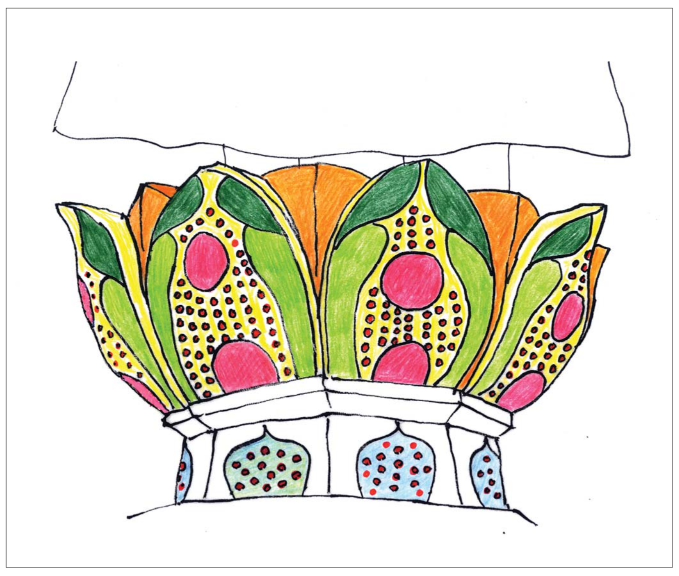


그림①-1 통일신라 금동여래입상. 언뜻 보면 대좌에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림①-2. 영기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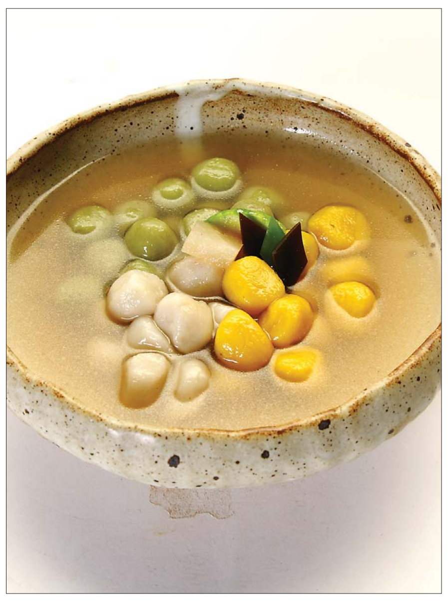
그림②-1 영기좌 전체의 채색분석



그림②-2. 영기좌의 상대를 확대하여 채색분석

藥이 되는 사찰음식

토란탕에 연잎밥으로 심신 맑히자



삼색 토란탕

△재료(4인 기준)

○ 토란 400g, 찹쌀가루 4컵, 소금 1/2큰술, 새송이 버섯 1개, 표고버섯 2개

○ 치자가루, 녹차가루

○ 다시마 쌀뜨물 국물 5컵, 된장 1큰술, 들깨가루 4큰술, 국간장 1큰술, 소금 약간

△만드는 법

① 토란은 잘 씻은 후 쌀뜨물에 담궜다가 찜솥에 찌거나 쌀뜨물에 삶은 후 껍질을 벗긴다.

② 삶은 토란을 곱게 으깬 다음 찹쌀가루와 천연색소를 넣어 반죽을 한 후 새알심을 만든다.

③ 쌀뜨물에 다시마를 담궈 1시간 정도 우린다.

④ 다시마 쌀뜨물 국물에 된장 1큰술을 푼 다음 새송이와 표고버섯, 새알반죽을 넣어 끓으면 국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맞춘 후 들깨가루를 넣어 끓여 낸다.

연잎 영양밥

△재료(4인 기준)

○ 연잎 4장

○ 멥쌀 1컵, 현미찹쌀 1/2컵, 흑미 2큰술, 은행 20개, 밤 10톨, 대추 10개, 호두 10개, 밤콩 1/3컵, 인삼 2뿌리,마 100g, 연근 100g, 서리태 1/4컵, 소금 1/2큰술, 참기름 1큰술

△만드는 법

① 멥쌀과 현미 찹쌀은 각 각 깨끗이 씻어 충분히 불린다.

② 부재료인 콩류는 삶아 준비하고, 은행은 볶아서 껍질을 벗기고, 대추, 밤, 호두, 인삼, 마, 연근은 사방 1cm 정도의 크기로 깍둑썰기 한다.

③ 냄비에 멥쌀과 현미 찹쌀, 콩을 넣어 밥을 짓다가 물이 자작해지면 나머지 부재료를 넣어 밥을 뜸을 들인다.

④ 연잎에 영양밥을 놓고 사각모양으로 접어 넣어 김 오른 찜통에 1시간가량 찐다.

토란은 추석 전후로 가장 맛 좋아

추석 전후로 가장 맛이 좋은 토란은 섬유질이 풍부해 장의 운동을 원활히 해줘 변비에 좋고 수산칼륨성분이 함유돼 타박상이나 어깨 결림에 좋다. 토란 줄기를 짠 즙은 독충에 쏘였을 때 발라주면 잘 나으며 토란에는 수산석회가 많아 아려서 먹기 힘들고 체내에 축적이 되면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한꺼번에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토란 요리를 할 때는 먼저 쌀뜨물에 삶아 떫은 맛을 없앤 후 다시마를 넣고 요리를 하면 각종 유해 성분을 제거하면서 영양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다시마의 감칠맛은 토란을 부드럽게 해준다. 토란을 삶아 찹쌀가루를 넣어 새알심 요리를 해도 좋으며 삶은 토란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끓여 먹어도 좋다.

옛부터 연잎은 불로식이라 하여 식용과 약용으로 널리 쓰여 왔는데 심신을 맑게 하고, 정력을 좋게 하며, 피를 맑게해 주며, 어혈을 제거하고, 하혈을 멈추는 효능이 있다. 또한 연잎은 더위를 풀고 체내의 불필요한 습기를 제거하며, 어지럼증, 만성자궁염, 대하증, 몽정, 야뇨증에 좋고 또 항균작용과 혈압강하작용을 하며, 위장을 튼튼하게 한다. 여기에 다양한 곡류, 두류, 견과류 등을 섞어 밥을 지어 쪄먹게 되면 영양적으로 아주 훌륭한 별미로 냉동보관 하였다가 쪄 먹어도 좋다.

다양한 잡곡이 들어가는 밥에는 반드시 약간의 소금을 넣어야 맛이 잘 어우러지게 된다.

김은정 (본초전통음식연구소 소장)

아신 수완나 명상 힐링 캠프

명상힐링으로
스트레스도 비우고
깨달음도 경험해 보세요

일 시 : 2013. 9. 28(토)오후 2시~29(일) 오후 3시까지
장 소 : 법보종찰 해인사 길상암 적멸보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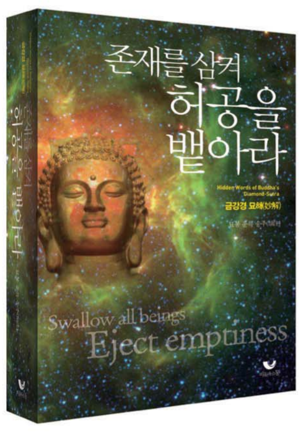
준 비 물 : 세면도구, 필기구, 간편복
힐링교본 : "해탈 그리고 닙바나" (법보시 증정함)
프로그램 : 고통알기와 비우기/나를 바로보기/멈춤과 관찰/깨달음 체험하기/내안의 부처만나기
(힐링캠프에 동참하신 분에게 수료증 수여)

수행지도 : 아누다야선원장 수완나스님
수행유나 : 심원사 주지 삼무스님

입 재 비 : 1인 5만원
접 수 처 : 길상암 종무소 : 055) 932-7268
계좌번호 : 농협 843173-51-026991(예금주:길상암)
접수마감 : 2013. 9. 27까지

법보종찰 해인사 길상암 감원 광해 합장

이뭐꼬? What is it? 일러라! Tell me at once!
하나 둘 셋, 이와 같아 넷이니라!
There four 1, 2, 3…



Swallow all beings Eject emptiness
존재를 삼켜 허공을 뱉아라
금강경 묘해妙解
묘봉운륵 송주(頌注)
신국판 | 흑백 | 768쪽 | 2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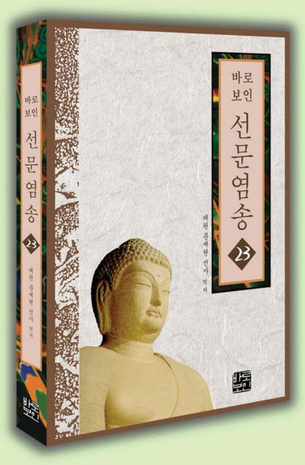
조사선으로 푼 漢 · 英 · 韓 금강경 수행지침서

덕숭총림 수덕사 초대방장 혜암(惠菴) 선사의 법을 이은 묘봉 스님(대전 죽림정사 주석)이 금강경에 대한 주석(註釋)을 달고, 선(禪)의 안목을 담아 독자적인 견해를 게송 형식으로 드러낸 금강경 수행지침서. 금강경의 한문 원문을 한글과 영문으로 독창적으로 번역하고, 이를 다시 풀이하여 중요한 부분을 다시 영역한 漢 · 英 · 韓 금강경 해설서이기도 하다. 저자는 금강경에 대한 선적(禪的)인 송주(頌注)를 "화장 끝내고 다시 분칠한 격"이라 자평했다.

비움과소통 www.facebook.com/BiumSotong (02)2632-8739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62번째 저서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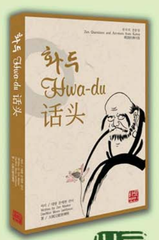
* 바로보인 선문염송 23권



전30권 중 제23권 출간!
전등록보다 더 많은 공안도리를 결집한 선문염송.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모든 공안을 평하고 송하여서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 화 두 〈한영중 3개국어판〉

'화두' 는 대원 문재현 선사님 평생의 선문답의 결정판이다. 생생히 살아있는 선(禪)을 한영중 3개국어로 만날 수 있다.



현재 31종 62권의 저서가 출간되었습니다.
www.zenparadise.com 참조

031-534-3373 / 010-9043-1016